

132주년 세계노동절

2022년 4월 15일(금) / <http://metalunion.nodong.org> / 02-2670-9555 / 금속노조 교육실

1886년 노동자 총파업, 세계 노동절을 만든다

1880년대 미국 자본가들이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맡아 피울 때, 미국 노동자는 하루에 12~16시간을 일했다. 노동자들은 주급은 7~8달러밖에 받지 못하며 월 15달러 판잣집 방세를 감당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노예 같은 삶을 거부하자며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1884년 5월 1일 미국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했고, 2년이 지난 1885년 5월 1일 시카고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열렸다.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했다. 총파업엔 8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그런데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파업 중인 민중 6명을 총으로 살해했다. 다음날, 경찰 만행을 규탄하는 노동자, 민중

30만 명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가운데 신원을 알 수 없는자가 폭탄을 터뜨리고, 이를 계기로 경찰은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후 헤이마켓 광장에 터진 폭탄은 자본가들이 꾸민 소행이란 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7년 후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의 무죄가 입증됐다.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곳에서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했다. 그리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조건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헤이마켓사건

한국 노동절 역사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승만의 지시가 떨어지자 대한노총은 노총 결성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절의 이름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이제 더 이상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축제에 들러리 서주는 '근면성실'한 근로자가 될 것을 강압한 것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결성까지 나아갔다. 1989년 투쟁본부는 세계 노동절 100주년을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세계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1994년 5월 1일의 날짜는 찾았으나 이름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로 남아 노동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가올 윤석열 정권, 맞설 자는 금속노동자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불평등은 더 심화했다. 2022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격차는 52배에 달하는데 프랑스 7배, 영국 9배, 독일 10배 등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자본과 재벌을 더욱 통제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조혐오로 무장한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다. 윤석열은 '귀족노조', '강성노조'를 운운하며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핵심 기치를 들었다. 또 직무급제 전문가들을 포진했다. 전국의 노동 현장에 구조조정과 저임금을 확산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맞서 금속노조는 불평등 사회를 바꾸고 재벌 독점 체제를 끝내기 위해 20만 총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동자가 앞장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공세를 막겠다는 의지다. 그 투쟁의 포문을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열 예정이다.

132주년 세계노동절대회

2022년 5월 1일 오후 2시 서울도심 및 전국 15개 주요 지역 도심